

세민황데가인간에잉금으로잇섯는데  
 고집이시고마음이사나운양반으로서  
 만민백성을괴롭게굴고,불법을불시하여  
 불도밋는사람을험한벌에처단하며  
 포악한짓하다가죽어지다  
 죽어서저승을가서보니  
 죽어저승간인간들이박망이들을들고  
 세민황데가죽어온다하니,심복한뚜드리며  
 이승씨의원수를갹혀주자하고,덤벼들어가다  
 저승처사가못한다고만류하며  
 저승왕에게데려드러가니  
 그만디옥으로가쳐버리다,그리하여저승왕이  
 만사를생각하야,탄복하고잇슬새  
 그전부터죽어서저승가잇든백성들과  
 새로저승간사람들이  
 그저승왕앞에수업시모여들어  
 세민황데는이승에잇슬새  
 우리들에게억울헌돈을만히빼앗스며  
 쥬업는사람들쥬잇다고하야  
 못견데게굴고죽여버리고하며  
 포독헌짓만하얏스니  
 원수를갹혀줍서하고,원정을들거늘  
 저승왕이세민황데를불러다가  
 슬픈듯이하는말이,너이고악한놈아  
 이승에서못할짓을만히하야  
 에모한사람을괴롭게굴고죽이고  
 건달로사람의돈을빼여먹엇스니  
 그새에못할짓한것만침울혼일을하며  
 못사는사람잘살게하고,죽은사람살니고  
 건으로먹은돈을쥬다갹혀주어라하매  
 세민황데민망하야하는말이  
 올혼일할거야말고라도  
 돈이야어데잇서갹으겟습니가,그리하니

저승왕이용심을내면서하는말이  
그러면네가이승에서  
건먹은돈을다엿지해야버리고  
이제부터엿지하겠단말이고.만년동안  
베염통에살려도좃탄말이나하니  
세민황제가이승에서는과연잘못하엿습니다  
하고빌고빌며저승왕이  
돈언마만빚저줍서하거늘  
과연저를살여주면.이승에가서  
납분버릇곳치웁고선한마음먹어  
만인적선하와돈을버려갑허들이갇사오리다  
그러하니이승의매일장상을아는아하거늘  
몰으갇습니다하매  
이승에매일장상이돈을만히가저잇스니  
그돈을빚저췌다가.이승에가서  
그사람에게갑허주라하고  
돈궤궤직이를불러서.네돈을  
이세민황제에게내여주라고명령하니  
그돈을빚저서.그만흔사람들에게갑허두고  
자긔저승궤에가고보니.단지나룩한뭇밭게업다  
저승왕에게물어.어찌하야저의저승궤에는  
나룩집한뭇밭게업소잇가하니  
너는세상에서나무거공것만만히먹고  
남에게공것주어본일은업다  
단지어럿슬새동내늬은이에게  
나룩집한뭇준것뭇밭게업다  
살엇슬새활인을만히하야야  
저승궤에재산이만하야지는것이다  
그러면엇쨌것이활인지덕이오이가  
베굽흔사람밥주고.웃업는사람에게웃주고  
가난한사람에게돈주고하는것이활인지덕이다  
직만인적선을하야야하는것이다  
어서속히이승으로나가서  
만인적선하고도라오너라  
그리하야너가다가보면.어럭송아지가나서서  
길을인도하야주갇다고하리라

그러나그송아지의말을듯지말고  
곧은길로만나가거라,또가다가보면  
힌강아지가길을인도해야주겟다하리라  
그러나그말도듯지말고  
곧은길로만바로가다보면  
검천낭이라는체사가잇슬터이니  
그체사안테물으면,이승으로갈수잇슬이라  
이승으로오다보니,과연어력송아지가그리하고  
또힌강아지가그리하나  
저승왕의식힌대로하야,고든길로만오다보니  
검천체사가잇슴에,길을물은직  
당신이세민황데임니가하다  
그러타고하니,그러면이리로짜러오시요  
얼마썸썸차가니,엇편문을열며  
کمکم헌데로만들어가면  
이승으로갈수잇다고말하다  
그리로오드니,금턴체사가속히가시요하며  
등을바드니,턴디소갓흔데로텀병하고떨어져지다  
쌈씩놀라고게여보니  
그곳이이승이되여,자기도이승사람이되다  
직시만조백관의조회를열리고,조사하야보니  
매일장상은신을멘들어팔고  
그마누라는술장사를하면서  
살고잇다는것을알다  
그리하야세민황데는혈파리몸을채리고  
야행을허다가매일장상의집으로들어가다  
웨방사람덴김니다하니  
그매일장상이다정스럽데들어오십시오  
그리하야들어간매일장상은  
술을팔어달나고하니,술상을정성스럽게차리고  
가져다놋커늘,술석잔을먹고술갑을물은즉  
한잔에두푼식육푼만냅시요하다  
그는무삼연고이뇨하니  
다른집에서두푼을바드면한푼을밧고  
다른집에서너푼을바드면두푼을밧고하는것은  
내집에는그전붓터항상잇는일임니다

이것이적선인가생각하며,세민황태는  
몇칠후에다시매일장상의집으로가서  
신을한배팔어달라고하다  
그리하니신한배를더내여주거늘  
그연고를물으니  
신한배를사는자에게두배를내주고  
두배를사는자에게네배를내주고하는것은  
내집에잇서서불변의례규이웨다한즉  
이것도적선인가생각하고도라간후  
또몇칠만에매일장상의집으로가서  
돈을열량만빌려달라고하니  
그리합시요하며,선선히열량을내여주거늘  
세민황태가말하되모른사람에게  
돈을주엇다가안갓어다주면어찌리요  
그러니옹삭하시거든갓어다췌다가  
또생기거든갑혀주시요,그러나돈이안생기거든  
언제까지던지안갓어다주어도조흐니  
족음도걱정하실것업습니다하고  
길거히우스면서대답하다  
매일장상이돈열량을받고나오면서  
이런것이정말만인적선이로구나  
이리하면서매일장상은  
수만명의불상헌사람들을살려주고  
수만량의돈을달은사람들에게  
건으로먹엿슬것이다,그러니매일장상의  
저승궐에는돈이그득이차고잇는것이로구나  
이리생각하며,떡교화를받게되다  
돌아와서,세민황태가직시조회를열리고  
적선지도를닥그기위하야,여러가지방침을  
의론하니,령의정대신이말하기를  
완전무결한적선지도를닥그러면  
팔만대진경을내여와야합니다  
그러면누가어대를가서내여올것인가하고  
의론을거듭하던쑈에  
호인대사라는신하를식혀서,극락세계에보내고  
팔만대진경을내여오도록하게되다

호인대사를불너서,극락세계의  
팔만대진경을내여오라명령을하니  
호인대사는어느영이라거역할수잇스리요  
극락세계가어는쌍어는구석에붓튼줄도몰으는  
호인대사는허공을우러러축도하고  
아무목표도업시가다가  
죽어지면죽어저라하고  
이쌍이막다다른곳싸지만  
거리가보자는생각을가삼에품어  
발이돌아가는대로만거리가고거리가고하다  
가다가엇찌한험상스런칭암절벽의  
중간에이르러,어썰줄을몰으고  
정신이혼겁할때,어데서인지  
호인대사호인대사하며불으는소래가들이거늘  
정신을가다듬고사방을두루살펴  
말소래의주인을찾으니  
사람의흔적도보이지아니하다  
그러나자기를부르는소래는연하야들림에  
호인대사용기를쏟내고말하기를  
귀신인가생인인가,나를살녀주옵시요하니  
나도죽어가는사람인데  
어찌하야달은사람을살리리오만은  
이리로뛰여찌러지시요하는소래가들리다  
그리찌러지면죽지안소하니  
죽지안을터이니,걱정말고뛰시요하는소래가  
더욱명확하게들리어오다  
주저하는호인대사는죽음을각오하고내여뛰니  
그곳에문답하든사람이잇는데  
그사람은산갓흔바위틈에젖히여잇고  
간신이대구리만뵈스로내밀고잇다  
당신의일홈은무엇이냐고물으니  
빠른개비노라고하고,웨이곳에와서  
이런곤경을당하게되고잇는야하니  
세상에덴기면서포학헌짓을만히하기싸닭에  
옥황상제가췌를마련하고  
천년간을이런벌을쓰게한것입니다

그리하여천년만에호인대사가  
이곳을기나가거든이돌을열니게하야나오고  
쥬를사하야호인대사를도와주라고하얏는데  
지금에꼭그천년이되엿습니다  
그러면내가이돌을어찌하야열릴수잇느냐고  
호인대사가물으니,당신의손으로  
이돌을밀며는얼마던지열릴수가잇슬것입니다  
그러거늘호인대사가연약헌손으로  
한번밀치니,산갓흔바위가현하게열리고  
빠른개비는펼적히뛰어나오고,무한히사레하다  
그리하여내억새에만메달니고  
튼튼이달려붓터떨어지지만마시요하며  
호인대사를업어,한번용명을치니  
베게갓치절벽우으로뛰어올르다  
절벽에서풍덩실바다로떨어지니  
거게넓다란길이열니매,그길로무한이걸어가다  
가다가보니압혜망망헌펼바다가생겨남에  
룡왕으로들어가서  
작으마한베를어더다가,그베를타고  
수만리를넘어가고,그다음청수바다황수바다  
백수바다흑수바다적수바다를기나서  
극살세계로올나가고,사실내막을저저히말하야  
소망하든팔만대진경을내고희색이만면하야  
또빠른개비와벗하야오던길을뵈도라오다  
그리하여몬저기나가던곳을건너오고넘어와서  
넓은벌판조흔길에나오거늘  
지금은호인대사가혼자라도  
본국을향하야가는데걱정이업게되거늘  
빠른개비가말하되,나도호인대사덕분에  
귀향을풀리고,호인대사도나덕분에  
조흔세상을무사히구경하고  
당신의소원하든바를달성하게되엿소  
피차간에귀인만나죽는목숨살렸스니  
이다음에언제다시길거운낮빛으로  
상봉하기로하야,이만갈립시다하더니  
그의그림자가허공으로살어지고

호인대사혼자몸이되여,세민황데압까지  
돌아오고팔만대진경을올니다  
주야로축원하며,호인대사가팔만대진경을  
무사히내여오기만바라고있던세민황데는  
희열을못이기여,호인대사를기특하게생각하며  
무한히칭찬하며,직시높은베슬을식혀주고  
만조백관의조회를열어,매일장상을불오고  
매일장상이앞에온즉  
저승간재의사실만단을이약이하고  
이승온후에매일장상의집에  
차저가던일까지이여서저저히말하고는  
네가그렇게만히적선을한것은  
나에게떡이나큰교시가되고,내까지라도  
이다음부터활인지덕을베풀게되엿다하며  
매일장상을실컷칭찬하고감사하며  
또이어서너는나의게칭찬받는것보담도  
저승으로간다면저승왕의  
칭찬은몇곶절이나더할것이다  
그리고너의저승궐은내가본재보담도  
지금에는더욱부러나고잇슬것이며  
네가죽어가서차지할재는  
멧곶절이나더불어나게될것이다  
이러하니매일장상은오히려비웃는듯  
불쾌한듯이미소하며하는말이  
그러나소인은칭찬받기를질거워하지안습니다  
그뿐아니오라,오히려붓쓰러워합니다  
세민황데가이상스럽게생각하며  
그것은웬일인고,너의일삼든  
만인적선활인지도가장하지아니한가  
너의덕분으로내까지라도  
오늘에더욱이선한맘을먹어서,선한일을하야  
저승왕에게칭찬을받게되지아니하얏는가하니  
매일장상이머리를가로흔들면서  
소인은원간부터남에게  
한찬을바들을실혀하는바이나  
소인의생각한만인적선활인지도는

수만의한운도닥그지못하얏습니다  
아직도밥업시굶는사람,웃업시떨니는사람  
온갖불상한사람이세상에가득하니  
엇찌만인적선을하고  
활인지덕을닥것다고하겟습니가  
소인은세상에모든불상한사람들을  
구제하지못한오날에는  
저승을간다할지라도낮이압허서  
저승왕을대할수가업겟습니다  
소인은아즉손붓치지못한일이넘어나만하고  
할일이너무나태산갓치잇스니  
여기서는족음도만족할수업습니다  
이리하니세민황제가크게감동하야  
지금에자기가얼마나잘하는이  
매일장상에게써돌든것을부쓰러워하며  
온세상의불상한사람들을  
모조리구제하야하리라는것을  
새삼스러히통감하다  
그리하고저승에서빌여쓴돈을  
저승왕의명령에의하야갑허주노라하고  
그돈에구변을체워서내여주니  
매일장상이긋게거절하며  
소인은지금까지남의게빌여준돈을  
구변까지합하야바더본적이업습니다하거늘  
세민황제가말하되  
이것은저승왕의명령에의하야주는바이니  
반다시바더야한다하며,강제로맏기다  
그리하야세민황제는  
모든것을매일장상에게의론하며  
팔만대진경도보고,불도법당기도  
모든활인적선지도를마련하다